

중소기업 동반 해외기술 설명회

2016 Korean Construction Technology Fair

Researcher
글로벌협력본부 대외협력실

Editor
이용국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해외기술설명회

국내 건설분야 중소기업은 국내 시장 상황의 한계로 우수한 건설기술을 가지고 해외에 진출하는 것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정보 부족, 사업 수주 및 진행을 위한 네트워크 부족 등을 이유로 해외 적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매년 해외기술설명회를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우리 기술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돕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시 겪는 애로사항 해소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미 2014년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2015년도 베트남에서 해외기술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올해 10월 해외기술설명회가 개최된 캄보디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주요 중점 협력국 중 하나다. 최근 인프라 건설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국내 건설업체에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소기업은 전문 인력과 자금력 부족으로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과 같은 해외시장에서 수주 및 수익 확보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해외 사업 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해외기술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 이번 행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참여기업의 기술소개와 더불어 비즈니스 미팅 홍보부스를 통한 홍보, 포스터 세션 등 양국의 건설기술협력을 강화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2. 행사에 참석한 캄보디아 공공건설 교통부 뜻창 코살 차관이 행사장 홍보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이번 기술설명회는 특정 분야의 기술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닌 건설기술 전 분야를 총망라해 소개하는 자리로 캄보디아 공무원, 연구원 및 산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중소기업의 우수한 건설기술을 소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해외기술 사업화와 중소기업의 캄보디아 진출 판로를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기술설명회에서는 캄보디아 공공건설 교통부 뜻창코살(Tauch Chankosal) 차관을 비롯한 200여 명의 현지 관련 기관 전문가들과 국내 50여 개 중소기업 간의 비즈니스 미팅도 함께

진행됐다. 이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건설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캄보디아 건설제도 및 기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KICT와 중소기업의 우수한 건설기술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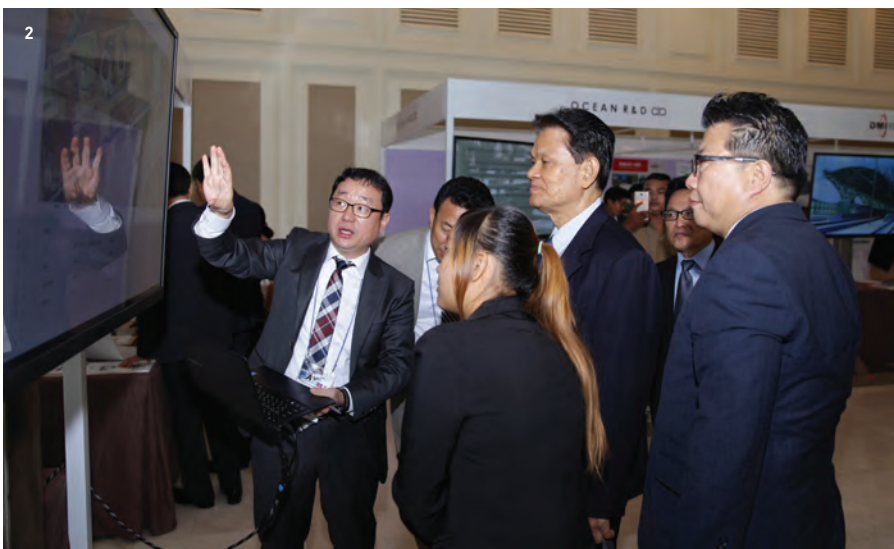
해외기술설명회는 크게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은 'KICT 기술설명회'로 현지적 합성을 높이기 위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기술 소개 및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캄보디아는 전체 도로포장에 약 95% 이상이 아스팔트 포장으로 되어 있어 문순기후형 중온

아스팔트 기술 시장은 있지만, 기술 적용에 대한 경험이 없어 기술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한 첫 번째 기술로, 캄보디아 아스팔트 포장 도로 파손을 줄일 수 있는 '한국형·문순기후형 중온 아스팔트 기술(Warm-Mix Asphalt Technology)'에 대한 도로연구소 김용주 수석연구원의 강연이 진행됐다. 강연에서는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 연구자, 교수, 엔지니어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기술 소개 및 기술 전파를 통해 문순기후형 중온 개질 아스팔트 기술을 적용한 시험포장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어서 진행된 두 번째 기술 소개에서는 ICT 융합연구소 홍창희 수석연구원의 'BIM-GIS Technology(BIM/GIS Interoperable Platform)' 강연이 진행됐다. 강연에서는 BIM/GIS Platform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 설명과 더불어 세계적인 기업 동향, 다양한 적용 사례와 전망 등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구조융합연구소 조창빈 연구위원의 '슈퍼콘크리트(초고성능 콘크리트)' 기술이 소개됐다. 먼저 콘크리트와 강재의 한계에 대해 살펴본 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슈퍼콘크리트(K-UHPC)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더 나아가 캄보디아 현지 재료와 장비를 활용한 슈퍼콘크리트 개발 가능성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기술 소개 이후 진행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내 기업 기술들이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건설엔지니어링, 창호, 아스팔트 플랜트, 드론을 활용한 3차원 설계기술 등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 소개와 더불어 홍보부스를 활용한 홍보가 함께 진행되어 참가한 현지 관계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냈다.

건설 한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현지 관계기관 및 기업들은 이번 해외기술설명회를 캄보디아와 한국 간 지속적인 교류 협력 네트워크의 중요한 시작점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캄보디아의 도시 기반 인프라시설 확충과 관련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 분야 기술교육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신도시 건설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건설 등을 위한 건설기술의 단계적 전략방안 등을 수립해 진출 활로를 모색할 좋은 기회로 판단된다. 그뿐만 아니라 프놈펜 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사업 등의 협력을 위해 한국 방문이 있을 예정임에 따라 건설교통 분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수월한 상황이다. 또한, 캄보디아 공공건설과 교통부 관계자들은 건설교통분야에 관한 양국 간의 협력 세미나의 정례적 개최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3. 축사를 하는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김원진 대사

4. 향후 캄보디아와의 정기적인 해외기술설명회 개최를 통해 건설분야의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요청에 부응해 캄보디아와의 해외기술설명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향후 양국 간의 상호 중점 교통분야 지식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캄보디아 정부 및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양국 간의 건설분야 관련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향후 국내 기업의 캄보디아 진출 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건설산업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매년 해외기술설명회를 개최해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아세안 국가와 이란 등 중동지역으로의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해외네트워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꾸준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내 중소기업이 전 세계에 '건설 한류'를 일으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K**

